

KIA 불펜 '반전의 시즌' 준비한다

이동걸 코치, 데이터·체감 병행 불펜 운영 재정비
선수별 강점 살린 '맞춤형 설계' 전력 극대화 모색



KIA 타이거즈의 이동걸 코치가 '목표'를 키워드로 반전의 2026 시즌을 기다린다.

KIA의 올 시즌을 돌아보면 내야의 출부상 만큼 아쉬운 게 불펜진

의 난조다. KIA는 지난해 굳게 승리를 지켰던 불펜이 흔들리면서 뒷심 싸움에서 밀렸고, 결국 8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KIA는 지난 8월 마운드에 변화를 줬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불펜 코치를 담당했던 이동걸 코치에게 메인 코치 역할을 맡겼다.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 이동걸 코치는 변화의 시즌을 보낸 뒤 준비와 타이밍이라는 목표를 찾았다.

이동걸 코치는 "처음 3경기가 잘 풀렸다. 그런데 주말 시리즈 가서 3번의 블론을 당했다. 이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며 "어떻게 불펜 준비를 더 시켜야 하는지, 승부처에서 어떻게 더 빠르게 끊어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운 시즌이었다"고 돌아봤다.

이동걸 코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체 타이밍 등을 생각하면서 2026 시즌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맞춰 이동걸 코치는 지난 11월 일본 오카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목표'를 언급했다.

이동걸 코치는 "목표가 없는 훈련은 의미 없다.

훈련 효과를 얻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한다. 단체 스케줄 속에서 각자 주어진 목표를 줬다. 1군 주전 선수들이 아닌 만큼 이들의 목표는 1군에서 던지는 것이었다. 1군에서 투구하기 위해서는 벽에 부딪혀 왔던 것들을 바꿔야 한다"며 "1군에서 던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 각자의 목표를 다르게 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선수마다 강점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걸 코치는 '맞춤형 목표'를 설정했다.

그는 "선수마다 가진 구종하고, 구질 움직임이다르다. 어떤 구종을 많이 컨택 당했는지, 헛스윙을 빼었는지 아닌지 등은 기록으로 다 나온다. 1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진 기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구질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만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동걸 코치는 직접 선수들과 캐치볼을 하면서 세세하게 피칭 디자인을 했다.

이동걸 코치는 "실제 캐치볼을 해보니까 찍힌 데 이터 숫자와 다른 부분이 있는 투수들이 있었다. 숫자로만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데이터와 봤던 것, 느낀 것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했다"고 설명했다.

KIA가 흔들림 없이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는 1군 투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마무리캠프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들의 성장도 필요하다.

성장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전력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춰



시즌 중반 KIA 투수 메인코치 역할을 맡은 이동걸(왼쪽) 코치가 선수들의 능력에 맞춘 세밀한 피칭디자인으로 반전의 시즌을 노린다. 지난 11월 일본 오카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양수호의 피칭을 지켜보는 이동걸 코치.

(KIA 타이거즈 제공)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성적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동걸 코치의 내년 시즌의 구상은 세밀함을 바탕으로 한 전력 극대화다. 좌완, 우완 큰 틀이 아닌 더 세밀하게 선수들을 보고 전력 배치를 할 생각이다.

이동걸 코치는 "좌완, 우완으로 한정해서 따지게 되면 한 선택지에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된다. 좌완, 우완 보다는 자기가 가진 공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타자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좌완, 우완이라고 한정 짓지 않고 가진 장점을 통해서 타자를 상

대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좌우라고 해서 무조건 좌타자한테 강한 게 아니다. 제 인지업을 잘 구사하는 선수가 있고,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선수가 있다. 최고의 구질을 던지게 하는 중요하다"고 마운드 운영 방향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견제시 주루방해 땐 '1개 베이스 진루'

KBO 2026 시즌 규정 강화

2026 시즌 수비 시프트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근 제4차 규칙위원회에서 확정한 ▲수비 시프트 제재 강화 ▲마운드 뒤면 광고 허용 ▲주루방해 해석 확대 ▲파울라인 규격 통일안 등 새 규정 및 규정 변경 사항을 18일 발표했다.

2026 시즌 수비 시프트 위반 상황에서 내야수가 인플레이 타구를 건드리면, 공격팀은 '타자 주자의 1루 출루 및 주자의 1개 베이스 진루' 또는 '플레이 결과 유지' 중 한 가지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

수비 시프트를 위반한 수비수에게는 실책이 올라가고, 타자의 해당 타석은 타수로 기록되지 않

는다.

'1개 베이스 진루권'이 주루방해 상황과 마찬가지로 견제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앞서 견제 시 주루방해가 발생하면 주자는 기존 베이스로 구루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1개 베이스 진루권을 받게 됐다.

구장 별로 다른 파울 라인 너비는 판정의 명확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 3인치(7.62cm)에서 4인치(10.16cm)로 통일하기로 했다.

새 시즌 시범경기부터 마운드 후면에 실루 광고도 허용된다.

광고는 후면 흙 위 주심과 타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스프레이 페인트, 초크, 흙 등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색상은 흰색으로 제한되며 규격은 높이 60cm, 길이 1.5m 이내여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총상금 9680억원...북중미 월드컵 '돈잔치'

48개국 출전...우승상금 739억

출전국이 32개에서 48개로 대폭 늘어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최대 돈 잔치가 벌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평의회를 열고 2026 월드컵 개최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7억2700만달러(약 1조743억원)의 재정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中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8개 참가국에 지급할 총 6억5500만달러(9680억원)의 상금이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2 카타르 월드컵보다 50% 늘어난 금액이다. 카타르 대회 총상금은 2018년 러시아 대회보다 10% 늘어난 4억4000만달러였다.

전년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은 세계 축구계에 대한 재정적 기여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2026 월드컵 우승국은 "월드 챔피언"이라는 명예와 함께 5000만달러(739억원)의 상금도 손에 쥔다.

뒤를 이어 준우승 3300만달러, 3위 2900만달러

4위 2700만달러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8강 진출국에는 1900만달러, 16강 진출국에는 1500만달러, 조별리그를 통과해 32강에 오른 나라

에는 1100만달러가 각각 돌아가고 조별리그 3경기만 치르고 탈락한 국가도 900만달러를 받는다.

여기에 대회 참가 준비 비용으로 모든 참가국이 150만달러를 지원받는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출전만으로 최소 1050만달러(155억원)를 받는 셈이다.

한국이 16강에 올랐던 카타르 월드컵의 상금은 우승 4200만달러, 준우승 3000만달러, 3위 2700만달러, 4위 2500만달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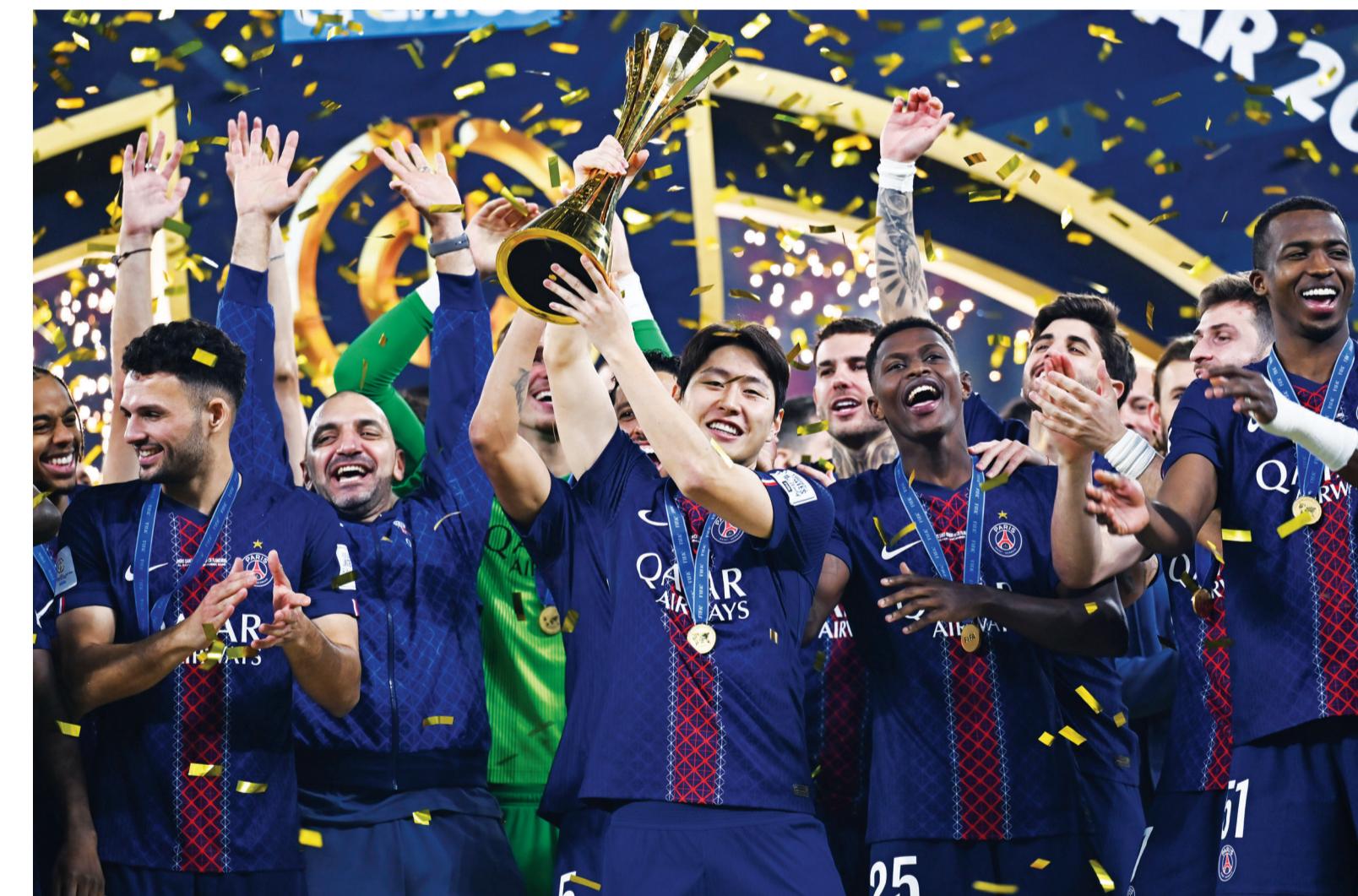
8강 진출국은 1700만달러, 16강 진출국은 1300만달러를 받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16개 국가는 900만달러씩 행겼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원정 월드컵 사상 최고 성적인 8강 목표를 달성하면 상금 1900만달러에 대회 준비 비용 150만달러를 합쳐 2050만달러(304억원)의 기와 수입을 올리게 된다.

48개국 체제로 처음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4개국씩 12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1, 2위 24개국에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국을 합쳐 32개국이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홍명보호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그룹(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승자와 A조에 속했다.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리아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FIFA 인터콘티넨털컵 2025 결승전에서 이강인 등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CR 플라멩구를 꺾고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PSG, 인터콘티넨털컵 우승...시즌 6관왕 '대업'

이강인 전반 햄스트링 통증 교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하는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인터콘티넨털컵 결승에서 부상으로 일찍 물러났으나 팀 우승에 활짝 웃었다.

이강인은 18일 카타르 알리아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 플라멩구와의 2025 FIFA 인터콘티넨털컵 결승에서 선발로 출전해 전반 35분 햄스트링 통증을 느껴 세니 마루루와 교체됐다.

PSG는 정규시간 1-1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2-1로 이겨 우승했다.

이로써 PSG는 한 해에만 여섯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6관왕 달성은 2009년 바르셀로나, 2020년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2024-2025 시즌 리그1, 프랑스컵, 트로페 데

상피용을 제페한 PSG는 지난 6월 창단 첫 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했고 시즌 초반 UEFA 슈퍼컵도 거머쥐며 유럽의 왕좌를 공고히 했다.

인터콘티넨털컵은 여섯 개 대륙 클럽대항전 챔피언이 세계 최강 프로축구팀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대회다.

PSG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결승전에 직행했다.

플라멩구는 파리미드(이집트), 알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오클랜드 시티(뉴질랜드), 크루스 아슬(멕시코) 등 각 대륙 대표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으나 우승을 눈앞에 두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정규리그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최근 FC메스와의 경기에서는 시즌 3호 도움을 올리기도 한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도 다치기 전까지 유효 슈팅을 이끌었다.

팀을 기록하고, 지상 불 경합 두 차례에 모두 성공하는 등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 31분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와 부딪히고 나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결국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떠났다.

PSG는 이강인이 교체된 지 3분 만에 흐비아 크비라초헬리아의 원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플라멩구는 후반 17분 조르자뉴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PSG는 브레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등을 투입하며 추가 골을 노렸으나 결국 1-1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PSG 비티나와 누누 멘데스가 각각 1번과 3번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했고, 골키퍼 마트베이 사포노프는 플라멩구 1번 키커 니콜라스 데라크루스를 제외한 네 차례 슈팅을 모두 막아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